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1호 【루계 제23193호】 주체99(2010)년 8월 29일(일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안북도당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평안북도대표회가 26일 신의주시에서 진행되였다.

대표회장은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대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대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표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총리인 최영림동지와 도, 시, 군당과 각급 단위 당조직들, 도급기관 초급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재룡동지가 하였다.

그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것은 그이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성스러운 력사적투쟁속에서 축적된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과 고결한 신념의 분출이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시대적요구의 반영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탐구,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새로운 사상과 원리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였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당과 무력,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자주의 항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당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신것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의지, 비범한 령군술로 나라의 방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라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틀어쥐시고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선군조선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를 조선로동당의 기본활동방식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창조의 새 력사,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한 자주적신념과 특출한 조직적수완, 비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우리 당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다져오신 성스러운 년대기로 아로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믿음을 주고 정을 주시며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드시여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선군시대 군민대단결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세계만방에 빛내이기 위한 원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초인간적인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애국헌신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지난 15년동안에만도 평북땅을 수십차례나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고 태천의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 뜨거운 사랑이 있어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지난 10여년사이에 수만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태천발전소, 백마—철산물길, 닭공장, 돼지공장, 양어장, 식료공장, 현대적인 도로 등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일떠세울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며 8,800정보의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한것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답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21세기의 장쾌한 기적이고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드리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7월에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불멸의 기적을 창조했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모든 성과를 우리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면서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평북땅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련이어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도당위원회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전당이 따라배울데 대한 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고 농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을 비롯하여 지난 10여년동안에 위대한 전변을 안아올수 있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고 더없는 영광이며 긍지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의 날을 내다보고있으며 무궁토록 번영할 **김일성**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이 제시한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의 요구대로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를 전선으로 여기고 진심을 바쳐 일하는 성실한 일군,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 평북땅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와 리상이 현실로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혁명령도력사의 장구성에 있어서나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위인적풍모에 있어서 그리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업적에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처럼 위대하고 걸출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선군혁명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평안북도당위원회 기관당조직대표인 김국영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최종건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조직대표인 박종근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신의주경공업대학 당조직대표인 오정희 신의주경공업대학 학장, 평안북도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리도길 평안북도청년동맹 위원회 1비서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있어 락원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태천의 기상이 창조되여 선군시대의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위대한 구호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하면서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순간 대표회참가자들이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터치는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대표회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긍지,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불같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보낼 대표자들이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대표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위문전문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존경하는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부지역의 도들에서 발생한 큰물로 귀국의 인민경제와 주민들이 많은 물질적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큰물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사태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데. 메드베제브

2010년 8월 28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안북도당대표회가 진행되였다. 특파기자 김기두 찍음

선군조선의 위력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성황리에 계속 진행

지난 2일에 개막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있다.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릉라도에 웅장화려하게 솟아있는 5월1일경기장은 관람자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현재 각계층 근로자들과 해외동포, 외국인 수십만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나라, 한민족의 예술의 높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의 높이를 잴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해마다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인류문화의 귀중한 재보로 공인된 세기적걸작이다.

체조와 예술을 독특하게 배합한 인류문예사상 최대의 걸작으로 불리우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창조되여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오늘까지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보충하면서 재창조되여왔다.

올해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에서 재창조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있다.

전국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관람열기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지난 시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관람자들을 위해 편성되였던 렬차가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달리고있다. 그리하여 수도근로자들은 물론 전국각지의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5월1일경기장으로 찾아오고있으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리랑열풍이 일고있으며 외국인들속에서 관람열기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아지고있다.

중국, 로씨야는 물론 영국, 미국, 도이췰란드, 스웨리예, 스위스, 오스트랄리아, 일본등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오세안주의 많은 나라들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달려오고있다. 해당 일군의 말에 의하면 외국인관람자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씩씩하고 우아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집단체조, 콤퓨터의 조작과도 같은 변화무쌍한 배경대 등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만 볼수 있는 황홀함과 신비경의 극치에서 외국의 관람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은 이런 희한한 작품을 한번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두번, 세번 다시 보겠다고 계속 신청해오고있다고 한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참모습과 광명한 미래를 향해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면서 외국의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은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계속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외국인들이 열렬히 칭송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엠. 엠. 알하싼은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지금 세계인민들속에서는 선군정치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확신하고 그를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높아가고있다.

선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은 앞으로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일것이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 단장 싸미르 이스마일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심단결의 힘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다. 하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그것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기때문이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까뮈지꾸 옥따브는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로씨야 연해변강청년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 아나똘리 꿀꼬브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주체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마쟈르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뜌니지인민통일당 총비서,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캄보쟈왕국 정부 부수상 겸 국방상,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아랍변호사동맹 총서기,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회,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련대성 동유럽쎈터 위원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먄마, 방글라데슈, 파키스탄, 우즈베끼스딴, 인도네시아, 단마르크, 로므니아, 벌가리아,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민주꽁고, 뜌니지, 에짚트, 에티오피아, 칠레,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이 승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울 때 아무리 강대한 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전문과 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반제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비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있는 답사자들

—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리 진 명 찍음

숭고한 헌신의 자욱으로 빛나는 비단실생산기지

희천제사공장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이 있어 이 땅우에는 인민생활향상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얼마전 희천제사공장을 찾았을 때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는 문제는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입는 문제를 떠나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청천강기슭에 자리잡은 희천제사공장의 전경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비약과 혁신에로 부르는 힘있는 구호들과 직관판들, 보기에도 산뜻한감을 주는 문화회관이며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생산건물들,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길, 그 주변에 푸르러 설레이는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

약동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엿보게 하는 공장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리연옥지배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 공장을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비단실생산기지로 꾸려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뜨겁게 넘쳐나는 일터입니다. 은혜로운 그 손길을 떠나 우리 공장의 눈부신 전변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감동깊은 나날들을 추억깊이 더듬는것이였다.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온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된바람이 일어나고있던 주체76(1987)년 8월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희천시에 비단실생산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공장의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공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수십차에 달하는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생산활성화를 위해 깊이 마음쓰시였다.

정녕 자강도인민들이 잘살기 위하여서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제사공장을 건설하여 비단실을 뽑아 인민생활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산간지대의 공장에까지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뜻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의 은정을 가슴에 새길수록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활짝 꽃피우시려고 바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되새겨져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신것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다그치고있던 주체87(1998)년 10월 어느날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던 때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는가를 생각하시며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현장을 오래도록 돌아보시며 높은 생산열의를 안고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곳 로동자들을 평가해주시고 비단실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떠나실 때에는 참 좋은 공장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이 있었기에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올수 있었다.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그 나날 이들의 투쟁에 지칠줄 모르는 활력을 부어주고 뜨거운 열정의 불길을 지펴준것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희천제사공장을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에 두고 계시였다.

천만군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를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던 주체98(2009)년 10월 어느날 희천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를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을 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얼마나 뵙고싶었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가.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깊고 열렬한 정을 안으시고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의 주인구실을 다하기 위해 애써 노력해온 나날에 이룩한 그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명주실생산에 큰 힘을 넣어 비단천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련관된 누에고치생산단위들에서 좋은 종자의 뽕나무를 심고 뽕나무비배관리를 잘하여 고치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문제…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이 더 높이 비약할수 있는 지름길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열정적인 모습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 불타게 하였다.

그후 공장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적지 않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누에고치선별기가 새로 제작됨으로써 선별공정에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공장의 생명선이라고도 할수 있는 보이라개조에서도 실리있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비단실생산에서 놀라운 위훈을!

지금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런 불타는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날마다 창조와 혁신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는 자강도에 가서 그곳 로동계급을 만나보고 힘을 얻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으로 간직한 희천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애국의 열정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키며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김 철 혁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뜨거운 당부

주체84(1995)년 11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연에 위치하고있는 한 인민군부대 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9월에 만났던 군인들이 보고싶은데 그들이 다 잘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사들의 겨울나이준비는 어떻게 되였는가, 고지에 쌀은 다 올라갔는가, 올해에 남새는 얼마나 접수했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순간 지휘관의 눈앞에는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1211고지를 지켜선 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여 병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지켜주신 새벽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 계실 때였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목적지를 거의 가까이했을 때 쪽잠에 드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손목시계를 보시며 운전사에게 문득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수행한 일군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그이만을 우러렀다.

그러는 일군들을 다정한 눈길로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단잠에 든 병사들을 깨울수 있다고, 제일선에서 초소를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두시간쯤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자고, 군인들이 잠에서 깨여나 아침식사까지 한 다음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사연깊은 점심식사

어느해 태양절이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전선동부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각별한 마음을 기울이시였으며 점심시간에는 그곳 장병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점심식사를 하니 기분이 매우 좋다고, 최고사령관이나 동무들이나 다 혁명의 한길에 나선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병사들과 언제나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친자식이나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이끌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리 성 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강도현지지도 10돐 기념보고회가 28일 강계시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경일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최기룡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9(2000)년 8월 자강도를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홍주청년1호발전소를 비롯하여 강계시와 장강군, 성간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인 자강도사람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앞장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도록 고무추동하고 도의 전반적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희천정밀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의 CNC화가 실현되고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홍주청년2호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농업생산에서 전진이 이룩되고 강계돼지공장, 강계오리공장, 강계고려약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 등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난 결과 거리와 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로 변모되고 도로건설, 강하천정리, 산림조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도에 펼쳐진 희한한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특히 령도업적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거창한 투쟁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말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며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현존발전소들의 관리운영을 잘하고 홍주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적극 내밀며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 자강땅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상업, 급양, 편의봉사사업을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짜고들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전략적로선

지금 온 나라는 대고조진군의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는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승산이 확고하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은 위대한 기적과 승리로 아로새겨진 선군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길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가 있다는 철의 진리가 맥박치고있다.

이 로선의 과학적진리성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에 뚜렷이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92(2003)년 8월 2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제시되던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군사적침략책동과 제재압살공세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우리 당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으며 천만군민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빛나게 계승하고 오늘의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7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우리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이 천만번 옳았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인민의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더 높이 비약해나가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우월하고 정당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해나가는 오늘의 총공세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은 강한 국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국력의 핵심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이며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국방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으며 강성대국도 건설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에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이다. 혁명무력과 함께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 사회주의의 운명수호를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의 나날에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자위적국방력의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방공업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50성상에 이르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국방공업발전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시였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던 지난 10여년간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국방공업의 현대화를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은 그 무엇으로써도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조국이 인공지구위성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자주적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것은 일찌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중공업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힘있게 추진시켜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국방공업과 중공업은 떨수 없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중공업이자 국방공업이고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경제구조에서는 자립적인 중공업이 위주로 되여있고 국방공업이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고있으며 국방공업의 발전은 중공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이 부문의 최신과학기술이 기계제작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에 보급되고 그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것은 우리식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력사적경험이다.

우리 당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를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데 기초하여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적부문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국방공업, 중공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 경제구조의 위력을 살리고 그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국가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신 국방공업,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그리고 당의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하여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성과와 그 위력에 의거하고있는 자립경제의 믿음직한 발전적기초가 있다.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추진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생활력있는 로선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경공업혁명, 농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옳바른 지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천, 신발생산으로부터 화장품생산에 이르기까지 경공업제품생산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대홍단의 감자꽃바다와 류다른 콩풍경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선경들을 온 나라에 펼쳐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의 불길도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불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삼일포특산물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식료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들이 온 세상에 소리치며 잘살 날이 다가오고있다. 현실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우리 인민의 생활과 밀접히 결합된 가장 인민적인 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력사적인 대변혁을 이룩하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리 강 철

총공세의 불길높이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약동하는 창조의 기상, 드높은 현대화의 숨결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그리고 현지에 달려나온 과학연구기관 기술자들의 불꽃튀는 창조적투쟁으로 하여 《승리》호, 《자주》호자동차기관가공직장들의 CNC화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소재, 제관부문의 중요공정에도 현대적인 설비들이 하나둘 들어앉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그리고 과학연구기관의 기술자들이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하여 창조의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생산건물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보수하기 위한 투쟁과 중요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일터마다에는 그들의 위훈의 자욱자욱이 빛나고있다.

생산공정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모체공장의 여러 직장 건물들을 개건하는 방대한 공사과제수행에서 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자동차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수시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걸음걸음 애로와 난관을 동반한다. 그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지식인들이 서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이것이 기업소에 내려와 《자주》호기관분공장의 현대화, CNC화에서 큰 몫을 맡아안은 공작기계설계쎈터 기술자들의 드높은 배짱이며 각오이다. 그들은 남들이 나서기를 주저하는 기술과제수행의 어려운 몫을 모두 맡아안았다.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전반적인 생산공정과 하나하나의 설비들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화, CNC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뛰고 또 뛰였다.

지영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기관본체가공흐름선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기존설비들을 료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원만하지 못한 조건이였지만 그들은 주저앉을수가 없었다. 전기부문 설계 하나만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많은 도면들을 료해하였고 당시의 담당설계원을 찾아 수십리길을 여러차례 오가며 실마리를 하나둘 찾아나갔다. 흐름선의 수십대의 설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친 그들의 노력속에 드디여 모든 설비들의 우결함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였고 그에 기초하여 연마반들이 들어앉아 현대화되는 자동차생산기지의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자동차의 마력수를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급기직장에 새로운 주조공정이 일떠서고있으며 소재, 단조, 열처리부문에서도 현대적설비들의 설치전투가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승리산기슭에서 세차게 휘몰아치는 창조와 혁신의 열풍, 그것은 당대표자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가 안아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훌륭하게 개건된 식료가공기지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지어주신 남새가공품인 《정방채》의 생산기지로 이름높은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더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해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찾으셨던 력사적인 그날을 돌이켜보시며 이 식료가공기지를 개건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식료가공품의 견본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시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 식료가공기지를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시당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개건지휘부를 꾸리고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건설력량편성과 자재보장, 설비제작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개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생산건물건설과 절임탕크건설 등이 동시에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한편 시의 력량을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장절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롭게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진행하는 이들의 건설전투정형에 대하여 친히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시당위원회와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높아지는 전투원들의 혁신적성과에 발을 맞추어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기 위한 이 전투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해나섰다.

사리원시의 주택보수사업소와 공공건물보수사업소 그리고 사리원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석순남동무를 비롯한 생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식료일용공업성의 일군들과 경공업과학분원 식료연구집단의 연구사들도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이들을 힘껏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실내와 야외에 절임탕크가 건설되고 여러가지 과일과 물고기, 고기가공품과 10여가지의 장절임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가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식료가공기지에서 일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새 제품을 적극 개발하여

평천일용필수품공장에서

얼마전 평천구역직매점을 찾은 우리는 그곳 봉사자들로부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구역적으로 앞서나가는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였다.

그길로 공장을 찾은 우리는 지배인 김정길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내놓은 하나의 자료철을 보게 되였다. 거기에는 올해에 새로 개발한 20여가지 제품들의 이름들과 함께 생산량이 적혀있었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 하나하나가 순전히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기술혁신을 하여 만든 소비품들로서 구역안의 주민들속에서 반영이 대단하다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야 인민들에게 윤택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군의 안내로 현장을 돌아보았다. 공장은 그리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이였다. 하지만 철제일용품생산기지로서는 손색이 없이 꾸려진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금연마설비와 압연설비, 선반, 볼반, 프레스 등 수많은 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공무기지를 손색없이 꾸리고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도록 참신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있다. 일군들은 늘 현장에 내려가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것과 함께 자주 구역직매점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매점봉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새 제품개발에 큰 품을 들이고있다. 계기에 맞게 새 제품품평회, 기술혁신현상응모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우리가 돌아본 공무작업반, 프레스작업반, 도금작업반의 현장들에는 별로 요란한 설비들은 없었다. 하지만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만들어낸 설비들이기에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 눈동자와 같이 다루고있다는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는 우리를 크게 감동시키였다.

우리는 소비품작업반 현장에서 차만복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의 헌신적복무정신과 애국적열의가 깃들어있는 제품들을 볼수 있었다. 작업반원들의 창조적열정이 깃든 접이식의자와 갖가지 규격의 손수레들, 부산물로 만든 여러가지 제품들은 무심히 볼수 없었다.

조립작업반원들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새 품종확대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가고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물조리, 갖가지 주방도구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정경철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안고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다.
—원산방적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전초병들 앞으로!

령대탄광 탄부들의 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령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이들의 전진도상에는 막아나서는 난관도 있었다. 때없이 부닥치는 붕락구간들, 암벽면을 꿰뚫고 쏟아져나오는 석수, 전진속도를 더디게 하는 짬버럭구간들…

그러나 탄광의 탄부들은 조금도 주저를 모르고 용감히 돌진하고있다.

지난 어느날 1갱 채탄1중대의 채탄구역에서는 많은 량의 물과 짬버럭이 쏟아져내렸다.

붕락구간은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이런 경우에 중대가 월계획을 수행하자면 부득이 채탄장을 옮겨야 한다는 누군가의 주장앞에 중대원들이 맥을 놓고있던 그 시각 중대장 강춘남동무는 이렇게 웨쳤다.

《우리가 물러서면 조국의 이 재부는 영영 묻히게 됩니다. 한걸음도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전초병들, 나를 따라 앞으로!》

삽시에 숨죽은듯 조용해졌던 막장이 끓기 시작하였다. 초급일군들이 허리를 치는 물속에서 동발나무를 안고 위험개소로 뛰여들었다. 뒤이어 중대의 탄부들은 집채같이 쌓인 버럭더미 가까이로 탄차를 들이밀었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돌격로를 열어나가려는 탄부들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였다. 그때로부터 5일후 중대의 탄부들은 수십m 구간에 쌓였던 버럭더미들을 밀어내고 다시금 채탄장을 복구해냈다. 이 나날 중대의 탄부들은 한 교대에 평균 수십t에 달하는 버럭을 처리하면서 순간도 쉬임없이 맹렬한 돌격전을 벌렸다.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중대의 탄부들은 월 석탄생산계획을 남먼저 끝내고 혁신자중대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이곳 중대원들만이 아니다. 어제는 1갱 채탄1중대가 혁신의 맨 앞장에 섰다면 오늘은 3갱 채탄1중대가 그 영예로운 앞자리에 들어섰다. 이들의 뒤를 바싹 따라 1갱 김혁청년돌격대원들과 2갱 채탄3중대원들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탄부들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치렬한 공격전을 들이대며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석탄증산을 위하여 탄전의 가두녀맹원들도 떨쳐나섰다. 남편들과 함께 석탄전선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남다른 자각을 새겨안으며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는 녀맹원들의 투쟁에 고무된 탄부들은 막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더 요구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탄광지구와 주변림지를 련결하는 삭도공사를 끝낸 기세로 장마철조건에서도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생산적앙양을 일으킨 비결은 무엇인가

순천제약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일군의 사업실적은 년한에 비례하지 않는다.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순천제약공장 초급당비서로 사업하게 된 림혜순동무의 사업실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공장에서 이룩된 훌륭한 성과들을 분석해보느라면 그가 선군시대의 당일군답게 높은 사업실적을 내기 위하여 얼마나 불같은 탐구와 실천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림혜순동무가 첫 사업으로 공장의 면모를 짧은 기간안에 훌륭하게 일신시킬 대담한 목표를 제기했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당장 생산정상화도 바쁜 때에 언제 그 방대한 공사를 진행한단 말인가. 또 자재와 로력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단순히 경제적조건만 따진다면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초급당비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이 사업을 중시하게 된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공장에 배치되여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그는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그것은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우만 쳐다보는 현상들이 다분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이였다.

이들의 이러한 사고관점은 생산과 꾸리기사업 등 공장의 전반적인 사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당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분발시키고 이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자면 첫 사업방향을 어디로 정할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그는 깊은 사색을 이어나갔다.

흔히 일군들은 새 직무를 맡으면 자기의 첫 사업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전개할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특히 단위책임일군일수록 그러한 생각은 더욱 강렬하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첫 사업을 통해서 그 일군의 조직력과 수완은 물론 그 단위의 전투력과 지어는 단위의 전망까지도 가늠해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진지한 토의끝에 초급당비서는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는 사업부터 대담하게 밀고나갈것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의 안팎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켜 생산환경, 위생환경을 철저히 보장하며 보다 중요하게는 이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자각을 깊이 심어주자는데 있었다.

상급당조직의 지지속에 그는 자기의 결심을 곧 실천으로 옮겨나갔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항생소1, 2직장, 주사약직장, 아스피린직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초급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한만철동무를 비롯한 능력있는 당일군들이 한개 직장씩 맡고 내려가 추켜세우도록 조직정치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모든 당일군들이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뿐만아니라 걸린 문제해결에 솔선 발벗고나섰다.

당일군들이 직접 강바닥을 훑으며 흔석과 모래원천을 찾아내였고 자재확보를 위해 수십리 밤길도 걸었다. 이들의 이신작칙에 고무된 종업원들도 내부원천을 빠짐없이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들의 지혜와 열정이 합쳐지는 과정에 항생소1직장의 외부가 번듯하게 꾸려진데 이어 아스피린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도 훌륭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즉시 공장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앞선 직장 종업원들속에는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그 어떤 난관도 얼마든지 이겨낼수 있다는 자부심이, 뒤떨어진 직장 종업원들속에는 우리라고 왜 저들보다 못하겠는가, 할바엔 더 멋있고 더 훌륭하게 하자는 승벽심이 샘솟게 하였다.

종업원들의 이러한 심리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뒤떨어진 직장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련속적으로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공장에서는 그전같으면 생각할수도 없었던 방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여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그리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힘을 믿을 때 어려운 과업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실천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였다.

자기 힘을 자각한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한것이다.

비할바없이 높아진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는 생산적앙양에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걸린 문제를 놓고 작업반은 직장에, 직장은 공장에 올리밀던 현상들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자기앞에 제기된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넘쳤다.

온 공장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의약품생산에서는 전례없던 혁신이 일어났다.

아직은 모든것이 풍족하지 못하였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려운 난관을 박차고 떨쳐일어나 상반년도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데 이어 7월생산계획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9월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할 자신심을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렇듯 이곳 초급당비서 림혜순동무가 첫 사업으로 시작한 꾸리기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키워준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여 높은 생산적앙양을 안아온 중요한 비결의 하나로 되였다.

본사기자 황철웅

기술혁신의 자랑 넘치는 일터

청진신발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발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청진신발공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 자력갱생입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광해동무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공장이 7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8월에 들어와서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는데 이 성과의 비결은 기술혁신사업에 큰 힘을 넣은데 있다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먼저 들린 곳은 제화직장이였다. 드넓은 작업현장에 들어서니 자동흐름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제작한 설비라고, 자동흐름선을 받아들인 결과 신발의 질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직장장 고향순동무는 자랑을 담아 말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심죽순, 고순옥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바라보며 사출종합작업반으로 향하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은 이곳 작업반에서도 세차게 몰아치고있었다. 작업장에 틀지게 들어앉은 사출기에서 사출신발들이 연방 나오고있었다. 질좋은 사출신발들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자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김명희, 김혁철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비껴서인가 하나같이 모든 제품들이 미끈하였다.

《사출공정에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출신발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장만호동무의 말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출기에서 나온 여러가지 형태의 사출신발들이 무드기 쌓이는 광경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어 들린 재봉2종합작업반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신눈구멍기계, 테프절단기들이 창안제작되여 재봉공정에서 많은 로력이 절약되고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러한 성과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합심한 결과에 이룩된것이라고 한다. 공장의 일군은 김경호, 최금석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기술혁신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헤여지면서 공장의 일군은 지금 공장에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높은 기술혁신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이곳을 떠났다.

특파기자 리성호

경희극 《산울림》을 통하여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해나가게 하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에 대한 관람이 있은 후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속에서 실효모임을 조직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농장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을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산울림으로 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창조의 산울림, 변혁의 산울림, 애국의 산울림을 더 세차게 울려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리정수

설비점검보수를 잘하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여나가고있다.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예술교류사업발전에 새겨진 불멸의 령도

조선예술교류협회창립 30돐을 맞으며

조선예술교류협회는 지난 30년간 주체예술의 위력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직접적담당자, 선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과의 문화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림으로써 인류문학예술발전과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주체예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주체예술의 빛나는 성과를 세계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세계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나라들사이의 문화적교류와 협력, 친선단결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인류공동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은 주체문학예술이 우리 당과 혁명,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의 하나이다. 조선예술교류협회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예지의 빛발아래 우리 문학예술은 1970년대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20세기 문예부흥을 창조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주체문학예술에 대한 세계의 지지와 관심, 교류와 협력열의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1980)년 8월 30일 다른 나라들과의 예술교류와 협력사업을 담당수행하는 조선예술교류협회(당시 조선공연협회)를 창립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예술교류협회가 창립됨으로써 주체예술은 세계의 광활한 무대들에서 자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들의 공연을 일일이 보아주시였으며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조국에 와서 예술전습도 받고 우리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 주체예술을 배워주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는 협회의 빛나는 연혁사갈피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협회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예술교류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가르쳐주시고 언제인가는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도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수도의 한복판에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워주시고 몸소 개관식장에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예술교류활동의 튼튼한 기지를 마련해주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협회는 자랑찬 발전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협회는 창립후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과의 예술교류를 활발히 벌려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지난 30년간 만수대예술단, 국립교향악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평양교예단을 비롯하여 이름있는 예술단, 문화대표단들이 중국, 로씨야, 프랑스, 이딸리아 등 수많은 나라들에 진출하여 주체예술의 혁명적위력을 만방에 떨치였으며 중국과 로씨야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을 포함한 5대륙의 수백개의 예술단체들과 문화대표단들이 우리 나라 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대외예술교류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주체의 문예사상리론과 우리 예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선전물들을 제작하여 세계각지에 널리 소개선전하였으며 중국, 로씨야, 일본, 미국 등지에 사는 해외동포들속에 민족예술을 보급선전함으로써 전민족을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은 협회가 거둔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조선의 자랑 - 봄축전

봄축전은 내용과 형식,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소리치며 자랑할 주체예술의 귀중한 재보이며 우리 인민의 자랑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계 5대륙의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력사가 깊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국제예술축전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술축전들이 있다. 그 축전들은 뮨헨가극축전, 베네찌아음악축전, 모나꼬교예축전과 같이 예술의 어느 한 종류에만 국한되여있지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음악, 무용뿐아니라 교예까지도 포괄하는 폭넓은 종합적인 예술축전으로서 세상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행성의 유일한 예술올림픽》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봄축전은 국내의 전인민적축전인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과 더불어 더욱 성대해지게 되였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봄축전은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축전조직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들을 조선예술교류협회가 맡아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성대한 국제예술축전으로 강화발전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주체71(1982)년 4월 력사적인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축전에 참가한 외국예술인들의 공연들을 보아주시면서 과분한 평가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연장소로부터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축전보장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며 축전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축전참가자들의 공연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높이 자랑찬 발전의 력사를 수놓을수 있게 한 고무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1990년대의 복잡다단한 국제국내정세의 변화속에서도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필승의 신심드높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단 한번도 번집없이 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축전의 예술적수준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은 협회가 축전사에 세운 뚜렷한 공적으로 된다.

중국의 이름있는 상해교향악단과 동방가무단, 로씨야 모스크바국립아까데미야교향악단과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예술단, 쓰웨슈니꼬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합창단,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 로씨야의 류드밀라 지끼나와 로씨야의 유명한 대중가요가수 라리싸 돌리나, 인도네시아민속무용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그루수카르노무용단, 프랑스 실내악단…

5대륙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축전무대는 세계 여러 민족들의 예술성과를 보여주고 서로의 협조와 뉴대를 강화하게 하는 국제적인 대회합마당이였다. 우리와 국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예술인들도 이 뜻깊은 회합의 마당을 찾아 평양으로 달려왔다. 미제가 특별사찰소동을 벌리며 전쟁접경에로 정세를 몰아가던 시기 우익보수분자들의 압력과 방해책동으로 후원단체까지 물러났지만 기어이 수준있는 예술인들로 예술단을 뭇고 축전무대로 달려온 북극성친선예술단 예술인들을 비롯하여 반동들의 온갖 폭행과 회유속에서도 세계예술의 아름다운 향기가 모두 모여 한껏 폭발하는 태양찬가의 성스러운 무대, 친선의 무대에 기어이 오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달려온 세계적으로 명성높은 예술단들과 예술인들,

정세는 엄혹했지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이처럼 날이 갈수록 더더욱 성대해지면서 세계적인 축전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참으로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같은 황홀한 무대를 펼쳐주시여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진정한 예술창조의 길을 밝혀줌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다함없는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며 태양절의 뜻깊은 무대에서 영생축원의 노래를 높이 부르고싶어하는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친히 발기하시였으며 축전의 명칭까지 달아주시면서 온 나라 인민이 모두 참가하는 전인민적축전을 마련해주시여 봄축전무대를 더더욱 빛내여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는 또 얼마나 가슴울리는것인가. 선군장정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전참가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소박한 공연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우리 예술인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그 사랑과 은정속에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들과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 예술소조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술창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보다 광범히 나누면서 전문예술과 군중문화예술을 다같이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한것 역시 협회가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축전이 시작되여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린 우리의 봄축전무대에서는 수령칭송의 노래, 태양의 노래가 세기를 이어 더욱더 소리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참으로 봄축전은 인류의 위대한 태양에게 드리는 다함없는 송가로서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영생축원의 예술축전이다.

당과 혁명에 언제나 충직해온 조선예술교류협회 일군들은 다음해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열리게 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축전사상 가장 성대하고 특색있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불타는 충실성과 애국적열정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영화

전국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신심과 락관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각지 기관, 기업소, 공장들의 근로자들도 혁명적군인문화를 따라배워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각지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은 사람들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와 각급 직맹조직들에서는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이 운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각지 기관, 기업소, 공장들의 직맹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한 목표를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대중체육정책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체육소개판 등을 통하여 체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여러가지 체육상식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방체육시설들과 축구, 롱구, 배구, 탁구장 등을 잘 꾸리고 체육기재들을 그쯘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아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률동체조 등 여러가지 운동이 정상화되고 명절날이나 휴식일, 체육의 날은 물론 실정에 맞게 정해진 체육시간에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여 체육경기들이 다채롭게 벌어져 근로자들의 체육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데 맞게 롱구, 태권도소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소조들도 실속있게 운영되여 근로자들의 체육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였다. 윷놀이, 장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과 바줄당기기,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족체육경기들이 대중체육활동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여 근로자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이 나날에 최근년간에만도 모범체육단위대렬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150일전투, 100일전투가 벌어진 지난해에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을 비롯하여 그 전해에 비하여 배에 달하는 근 200개단위가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뜻깊은 올해에도 평양 326전선공장,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두단오리공장, 남포경공업공장,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많은 기관, 기업소, 공장들이 모범체육단위대렬에 들어섬으로써 일터마다에 넘치는 혁명적열정과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러한 단위들의 모범을 본받아 각지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도 더욱 분발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심화되는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모범체육단위쟁취운동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 기적과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으며 온 나라에 풍만한 문화정서생활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각지에서 청년절을 뜻깊게 기념

국가간부들 청년학생들을 축하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벅찬 시기에 각지 청년학생들이 28일 청년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등 방방곡곡의 청년학생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선군조선의 청년전위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일성**민족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쳐갈 열의에 넘쳐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였다.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양형섭동지와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평양방직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 나가 청년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국가간부들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해당 단위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비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을 돌아보았으며 모범적인 청년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다.

간부들은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학과학습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축하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갈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청년학생들은 예술소품공연무대도 펼치고 체육유희오락경기도 진행하였다.

그들은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하여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자기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각지 청년학생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릴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청년절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청년절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8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 등 수도 평양의 무도회장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공격전의 전렬에서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청년된 긍지와 행복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무도회장들에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의 노래가 울려퍼지자 참가자들은 즐거운 춤바다를 펼치였다.

경쾌한 노래선률에 마음과 마음을 합치며 아름다운 춤률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는 영예와 자랑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조선의 행운》,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 등의 노래가 울리는 무도회장들에는 청년들을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신뢰의 정이 세차게 굽이쳤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해주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로다》, 《변이 나는 내 나라》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었다.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의 씩씩하고 박력있는 노래선률에 춤가락을 맞추어가는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이날 평성, 강계 등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절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무도회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선군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 평양체육관광장에서 —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4부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가 나왔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는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4부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지난 50성상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신데 대한 력사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있다.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실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적수령관,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신데 대하여 영화는 펼쳐보이고있다.

또한 천하제일명장의 손길아래 당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영화에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데 대한 력사적화폭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가 자기 발전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올수 있었음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성전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군인들의 투쟁모습을 담은 장면들은 병사들의 친어버이이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모든 장병들이 정신력의 강자,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고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하며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인민군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23일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장에는 《**김정일**령도자와 선군정치》라는 주제의 사진들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류결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호정약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왕성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간부부 부부장,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과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최병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2부)를 감상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은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을 열렬히 축하하며 뜻깊은 이날을 조선동지들과 함께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김일성**주석을 보좌하시면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였다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시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중국인민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쌍방은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공동인식을 적극 관철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오의 기수가 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염주고려약공장 알약작업반장 리진녀동무**도 있다.

제대되여 공장에 첫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년간 그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을 만드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작업반이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단합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자라난데는 그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 나날 그가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울인 낮과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뿐만아니라 그는 작업반원들이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반원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고있다. 언제인가 작업반의 앓는 동무의 약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가 병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더 잘하도록 고무해주기도 하였다.

그러한 그를 작업반원들은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영희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하민일부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먹이첨가제 혼합미생태제제

최근 여러 나라들의 축산부문에서는 항생소먹이첨가제대신 새로운 먹이첨가제인 혼합미생태제제를 만들어 리용하고있다.

지난 시기 축산부문에서 집짐승의 발병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써오던 항생소먹이첨가제의 부족점이 밝혀지면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먹이첨가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였다.

미생태제제는 집짐승의 뱉안에서 리로운 균의 비률을 높여주어 병발생률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집짐승먹이첨가제이다. 여기에는 리로운 균종들을 선택배양하여 만든 산균제제형태와 리로운 균들의 성장번식을 촉진시키고 해로운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활성물질형태가 있다.

혼합미생태제제는 산균제제형태의 미생태제제와 활성물질형태의 미생태제제를 혼합하여 만든 집짐승첨가제로서 항생소먹이첨가제를 대신할수 있는 가장 좋은 록색먹이첨가제로 인정받고있다.

혼합미생태제제는 집짐승의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높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먹이리용률을 높인다고 한다. 이밖에도 집짐승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축산물속에 약물잔류가 없으며 원가가 항생소 등의 항균약물보다 낮다고 한다.

혼합미생태제제를 제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집짐승종류에 따라 산균제제와 활성물질의 혼합비률을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이다.

혼합미생태제제의 연구개발은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록색먹이의 개발과 리용에서 전망성이 큰 먹이첨가제로 주목되고있다.

본사기자

총련교육일군대표단들이 떠나갔다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 류창순과 조선대학교 조선어연구소 소장 박재수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들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친미사대는 예속과 파멸의 길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입버릇처럼 떠들어오던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사대매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미국과 결탁하여 《천안》호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갔으나 망신만 당하였다.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친미사대적추태를 부리다가 최근 미국이 대이란제재가담을 요구해나섬으로써 실로 난처한 처지에 빠진것이다.

며칠전 미국무성 제재담당 조정관이라는자가 남조선을 행각하여 대이란제재에 적극 나설것을 피뢰들에게 강박하였다. 남조선의 요구대로 우리 공화국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겠으니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시 취하라는것이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이란측은 남조선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한다면 남조선기업들에 경제적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현재 남조선은 이란에서 적지 않은 량의 원유를 수입하는 등 이란에 대한 경제적의존이 심하다. 남조선이 미국의 요구대로 대이란제재에 가담하는 경우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남조선경제에 강한 타격이 가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이란제재를 선언한 이후 이란과 거래하는 많은 남조선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만일 남조선이 미국의 대이란제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더욱 혹심한 경제적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손아래《동맹자》신세인 피뢰들에게는 상전의 요구를 뿌리칠만 한 용기가 없다. 미국에 반공화국제재를 청탁하다 코가 꿰인 상태이니 더우기 그러하다. 미국이 주변나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청탁대로 조선동해에서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에 나서주자 미국과의 《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느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느니 뭐니 하며 입이 헤벌쭉해있던 리명박일당이 이제는 울상이 되였다.

하지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패당이 택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한길이다. 그들은 우리와 이란에 대한 제재문제를 놓고 미국과 흥정판을 벌리였으며 결국 대이란제재에 나서기로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 남조선당국은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이란에 대한 원유수입대금의 송금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대이란제재로 인한 저들의 경제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허황한짓이다. 지금 피뢰패당내부에서 《옳바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중동외교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비참한 처지는 그들의 친미사대매국정책이 가져온 필연적귀결이다.

리명박《정권》은 등장초기부터 민족을 등지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친미사대매국정책에 적극 매달려왔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것이 《이전 〈정권〉의 최대의 과오》라느니, 《새 〈정권〉은 미국을 우선시한다.》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친미사대적망동에 극성을 부렸다. 보수패당은 《동맹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높인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예속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조선당국이 세계적으로 배격받고있는 미국소고기를 남조선시장에 쓸어들게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앞날을 비관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데도 눈섭 한오리 까딱않고 막대한 인민혈세를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에 탕진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언제까지나 미국의 군사적지배와 보호밑에 살아갈 기도밑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연기한 매국노도 그들이며 미국의 강요대로 아프가니스탄재파병에 나섬으로써 수많은 청장년들을 상전의 침략전쟁대포밥으로 섬겨바친 쓸개빠진 역적배도 그들이다. 보수패당의 역겨운 친미사대적추태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은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운운하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는 본질에 있어서 수직적인 종속관계의 강화이며 식민지주구로서의 역할강화이다. 미국상전에게 철저히 예속된 리명박일당에게 자주성이 있을리 없으며 그런 너덜한 피뢰정권이 남조선의 리익을 지킬수 없다는것도 자명하다.

보수패당은 지금껏 미국과의 《동맹》만 강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하지만 《천안》호침몰사건이후 피뢰들이 련이어 당한 외교적참패와 남조선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악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고조되는 긴장상태는 미국과의 《동맹》강화가 오히려 남조선에 고립과 《안보불안》만을 가져다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에 아부추종하며 그의 힘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날뛰던 피뢰들은 이제는 대이란제재마저 강요당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피해까지 입게 되였다. 자주성과 존엄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사대매국《정권》, 미국의 허수아비《정권》에게 차례진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남조선언론들도 대이란제재의 파국적후과를 예고하면서 남조선미국《동맹만능주의가 초래한 외교적란맥》, 《모든 문제를 대미의존으로 풀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착각》,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편식외교의 귀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평하고있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은 반드시 굴종과 치욕을 가져오기마련이다. 피뢰들의 대이란제재가담은 미국의 식민지머슴군으로서의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의 종착점은 파멸이다. 리명박패당이 추악한 친미사대매국정책으로 오늘은 외교적치욕과 경제적피해를 들썼다면 래일에는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은 정 철

반통일폭압선풍을 단호히 물리치자

◇ 남조선에서 반통일폭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이며 진보련대 상임고문인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가 판문점중앙분리선을 넘어서자마자 체포해갔다. 이보다 앞서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성원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체포구속하였다. 파쑈광들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리적단체》로 판결하고 그 성원들을 구속하는 폭거도 감행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정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이 파쑈도당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고있다.

남조선당국의 탄압대상으로 되고있는 한상렬목사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남북공동선언 실천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소속 인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책동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용납 못할 반통일폭압책동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 반통일폭압은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의 실패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리명박일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린 결과 민심의 버림을 받고 최악의 위기에 빠지였다.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보수패당의 대참패는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정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해 꾸며낸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과 그 국제화는 오히려 동족압살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피뢰패당의 범죄적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리명박일당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에서 찾으면서 독재의 칼을 뽑아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살벌한 폭압으로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음으로써 그들의 통일의지를 꺾어버리고 동족대결책동을 더한층 강화하자는것이 파쑈광들의 흉심이다.

◇ 보수패당의 반통일폭압공세를 짓부셔버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들은 초토화되게 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은 그만큼 지체되게 될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사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보수패당의 반통일폭압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견결한 통일애국의지와 굴함없는 반독재투쟁으로 통일의 원쑤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긴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지난 지방자치제선거는 피뢰당국의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얼마전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는 당국의 반통일폭압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리명박《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진보련대, 청년련대 등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북과 남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보수당국의 파쑈적망동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폭압통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반통일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인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독재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동족대결과 반통일폭압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강렬한 의지의 발현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보수패당의 반통일폭압을 박차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통일폭압에 굴하지 않고 그에 맞서 대중적투쟁을 벌려나갈 때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제가 불법무효의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한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의 죄악을 기어이 총결산하고야말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1910년 8월 22일 위협과 공갈로 침략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그것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강점을 합법화한 일제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혹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떠선 우리 인민들을 100여만명이나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또한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가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꿈꾸며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날뛰였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자원을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조선사람모두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아픔과 피맺힌 한을 안고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은 심히 억제되고 국토량단과 전쟁참화 등 형언할수 없는 비극까지 겪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패망후에도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불법무효한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였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력사외곡과 독도강탈, 반공화국제재와 반총련소동 등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여왔다.

얼마전 일본수상이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대해서만 《사과》니 뭐니 하는 기만적인 담화를 발표한것은 일본의 과거죄악청산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일본당국의 치졸한 놀음은 과거의 침략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간교한 책동에 불과하며 그것은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 행위로 될뿐이다.

정녕 일본은 반드시 피의 결산을 해야 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은 오늘 리명박패당에 의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뛰여넘을것은 뛰여넘어야 한다.》느니, 《미래지향적관계》니 하는 쓸개빠진 망발을 줴치며 과거죄악을 묻어두려는 일본의 책동에 대해 적극 맞장구를 치다 못해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강탈책동에 대해서도 《기다려달라.》느니 뭐니 하며 공모결탁해나서고있다.

역적패당은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일본반동들과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으며 심지어 일본《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재침야망을 부채질하고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도 운명도 안중에 없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광신자, 가장 극악한 역적무리이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일본반동들의 피비린 침략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며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 살구멍을 찾으려는 리명박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곧 종국적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과거죄악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 배상해야 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조선의 분렬과 대결을 조장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 재난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사대매국패당을 영영 청산해버리기 위한 애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28일
평 양

4대강정비공사저지를 위한 투쟁 선언

남조선의 《MBC》방송에 의하면 4대강사업총력저지를 위한 협의회가 25일 서울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4대강정비공사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민중의 여론을 받아들여 4대강정비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특별위원회와 공동조사단을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릉성과 초불집회, 대규모집회 등의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본사기자

막을수 없는 통일지향

지금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피뢰들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다. 극도의 대결야망에 사로잡힌 리명박패당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발광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말살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살벌한 폭압선풍을 일으키고있다. 하지만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녘겨레의 의지는 꺾을수 없다. 조국해방 65돐을 계기로 남조선도처에서 진행된 여러가지 통일행사들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성원들과 시민, 청년학생 2 000여명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웨치자, 평화를》이라는 주제의 8.15통일문화한마당행사를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통일은 민중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강조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전면파탄시킨 보수당국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하루빨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각계각층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행사에서는 8월초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을 순회하며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고 《천안》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투쟁한 대학생통일선봉대의 활동을 반영한 극작품도 펼쳐졌다. 무대에서 공연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통일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로총과 산하 지역로조들, 로동자통일선봉대, 민주로동당 성원들이 참가하는 평화통일집회와 진보련대, 민주로총,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30여개의 정당, 단체성원 5 000여명이 참가하는 《〈천안〉합진실규명 조선반도평화실현 8.15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평화통일집회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높아가던 겨레의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리명박패당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세차게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은 65년전에 패망한 일제대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활개치고 리명박을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은 외세에 추종하며 반역행위를 일삼고있다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오늘 로동자들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는 《반리명박!》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랑독된 결의문에서 그들은 민주로총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며 리명박《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전개해나갈것을 결의다졌다.

이날 집회장에서 그들이 웨치는 《〈천안〉합 진면재조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조선반도 평화실현 조국통일 완수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 《로동자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자!》의 구호들은 역적패당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천안〉합진실규명 조선반도평화실현 8.15대회》현장에서도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줄곧 일삼아온 리명박《정권》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대회참가자들은 현 《정권》하에서 애국자들은 징역살이를 하고 반역자들은 출세하고있으며 인권과 민주화를 웨친 사람들은 탄압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개탄하면서 각계각층이 통일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리명박《정권》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대회뒤끝에 대형통일기를 서울역광장에 게양하는 의식을 가지고 《전쟁연습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공동선언 리행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남조선의 《21세기 한대련》,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로동당 학생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지역의 학생단체대표 1 000여명도 서울 성동구에서 《〈천안〉합진상규명, 조선반도평화실현 대학생문화제》를 열었다.

그들은 평화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리명박《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학생들이 이 투쟁의 앞장에 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대학생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대학생들은 서울 중구에서 《대북강경정책 전환하라!》, 《북남공동선언 리행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규탄하여 시위투쟁도 전개하였다.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진보련대 상임고문,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리명박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100인시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로총을 비롯하여 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야당들은 성명, 담화, 론평을 통하여 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침략적인 전쟁《동맹》강화책동을 단죄규탄하고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8.15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벌어진 이러한 투쟁들은 각계층 인민들의 마음속에 북남공동선언은 깊이 자리잡고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그들의 드팀없는 의지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변모된 인민의 문화휴식터

룡악산유원지를 돌아보고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일러온 룡악산이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인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로, 문화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룡악산유원지를 돌아보며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을 더욱 깊이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삼룡골짜기의 넓은 부지에 자연미가 나게 새로 건설한 인공못이였다. 량옆에 특색있는 안전란간이 세워져있는 새로 건설한 도로옆의 축구와 배구, 롱구, 그네뛰기와 널뛰기, 윷놀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오락경기를 할수 있는 놀이터를 지나니 황홀한 인공못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건설사단 만경대구역려단 려단장인 김룡화동무는 룡악산유원지야말로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라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1월 중순, 찬바람 휘몰아치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룡악산유원지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연미와 조화를 이룬 못들과 정각들, 특색있게 건설된 놀이장들과 도로들을 보시면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룡악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룡악산유원지를 더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경대구역려단의 건설자들과 구역안의 지원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 힘으로 룡악산유원지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보다 훌륭히 꾸리자.

이런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려단의 전투원들과 지원자들이 인공못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려단장은 그때 있은 가지가지의 감동깊은 사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처음에 삼룡골의 급한 경사지에 인공못을 건설할 때였다.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로 해내야 하였다. 그들은 굴착기를 비롯한 륜전기계들을 집중적으로 들이밀고 기초굴착과 성토작업, 외랑과 지붕공사, 정각건설 등 모든 일을 립체전의 방법으로 동시에 내밀었다. …

산기슭을 따라 못가에 훌륭히 건설된 100m외랑, 그 량옆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세운 기둥들이며 지붕에 얹은 청기와, 조선식대문이 또한 민족적건축형식을 잘 살리고있었다.

돌격대원들이 유원지의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 손상이 가지 않게 발파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함마와 정대로 언땅과 암반을 까냈다는 정치일군인 지광호동무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대대장들인 리한히, 강제만동무를 비롯하여 려단안의 모든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수만㎥의 굴착과 성토작업, 수천㎥의 중심강토작업과 진흙다짐을 하고 뚝을 쌓은 다음 콩크리트치기를 하여 못을 형성하고 정각과 외랑을 일떠세워야 하는 방대한 공사를 1년 남짓한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끝냈다는 이야기는 들을수록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명산의 땅속깊이 흐르던 물줄기를 찾아 사철 마를줄 모르는 샘물터를 만들고 편의봉사시설들과 야외식사터들을 건설하던 그날의 가지가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려단일군은 이제는 룡악산을 찾는 근로자들이 탐승을 끝내고 여기서 체육오락경기도 하고 뽀트놀이와 낚시질도 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되였다고 하면서 룡못구역의 정각과 놀이터를 지나 솔봉과 대봉에 새로 건설한 정각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경사급한 비탈길을 따라 눈내리는 겨울날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건설한 등산길, 천연바위에 뿌리를 박고 수림속에 우뚝 솟은 정각들, 산아래서부터 무거운 모래배낭을 등에 지고 가파로운 경사면을 톺아오르며 길을 닦고 정각들을 일떠세웠다는 2대대장 강성채동무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명깊었다.

우리에게 려단일군은 등산길을 열던 때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룡악산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룡악산유원지는 등산을 기본으로 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허리에 바줄을 매고 바위들을 오르내리며 등산길설계를 완성하고 가파로운 비탈길을 톺아오르며 모래와 자갈, 세멘트와 물을 져올려 포장길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딛고선 아스팔트길이며 도로안내표식판, 쇠바줄도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룡악산유원지에 찾아오시여 명산에는 산수가 구비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천길땅속의 물줄기를 찾아 샘터를 꾸리고 못에 물을 채우던 나날들에 있었던 사연들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룡악산유원지가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후세에 길이 전하리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 재 남

제9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 진행

제9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가 26일 평양의 대동강반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와 각 도 경기들에서 선발된 60여명의 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들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네틀까지의 낚시도구를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경기시작을 알리자 물의 온도와 흐름속도, 물고기들의 습성에 맞게 낚시도구와 미끼를 선택한 선수들이 넘실거리는 푸른 강물에 낚시줄을 드리웠다.

수면을 오르내리는 깜부기들을 긴장하게 주시하는 선수들, 누구에게 먼저 물고기가 걸릴가 하여 지켜보는 관중들의 관심속에 《잡았다!》라는 웨침이 울리며 함흥시 김광일선수가 솜씨있게 처음으로 납주레기를 낚아냈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선수들은 여기저기서 연방 물고기들을 잡아냈다.

휴식일은 물론 하루일을 끝낸 기쁨속에 낚시질을 하며 묘리를 터득하고 익혀온 재치있는 솜씨로 붕어, 살치 등을 낚아내는 선수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은 선군시대에 꽃펴난 또 하나의 문화정서생활의 화폭이였다.

경기에서는 평양시 박문식에게 1등상이, 황해북도 김철윤, 평안북도 황철선에게 2등상이, 평양시 김승현, 평안남도 김홍철, 황해남도 김수용에게 3등상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우수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낚시도구창안품전시회에는 110종에 360여점의 낚시도구와 미끼 등이 출품되고 낚시질과 관련한 직관물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에서는 착상이 새로운 낚시도구들과 각종 미끼들을 출품한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누구나 기뻐한다

룡전과수농장에서 병원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려 이곳 주민들이 기뻐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의 해에 병원개건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우리 당의 고마운 보건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할 일념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개건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주민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면서 개건사업을 밀고나간다는것은 결코 헐치 않았다. 그러나 이곳 의료일군들은 줄기찬 투쟁을 벌려 내부구조를 일신한것을 비롯하여 병원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았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병원에서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뜨겁게 새겨안고있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주 순 화

혁명적당건설의 귀중한 경험도 가르쳐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업적을 놓고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입니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혁명적당들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수많은 당수들과 당활동가들을 만나주시고 당창건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들가운데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도 있다. 그는 원래 꼬스따 리까사회당 총비서였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된 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체사상보급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깊이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우리 사회당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당으로 만들수 없을가.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회당이 일조일석에 방향전환을 할수는 없었다. 자기의 결심에 따라 사회당 총비서직에서 사임한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당을 창건하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정작 당을 창건하자고 하니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아길라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을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체70(1981)년 10월 아길라르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친히 아길라르를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아길라르의 마음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설레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난 기간 자기가 일해온 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다음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데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는지 가르치심을 받고싶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겠다는것은 아주 좋은 발기라고 하시면서 혁명투쟁을 하려면 당을 조직해야 하는데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을 잘 받들어나갈수 있는 핵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자신께서 당조직을 결성하시던 일을 실례로 드시면서 처음에는 무슨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내오는것이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망라시킬수 있는데 그들가운데서 핵심을 키우고 그 핵심들로 당을 조직하면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서 나타났던 편향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께서 새로운 청년핵심들을 묶어세워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투쟁을 잘해나가니 국제당대표가 스스로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아길라르는 마치도 높은 령마루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는듯 한 심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한다면 꼬스따 리까에서 얼마든지 새 당을 창건할수 있고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였다. 아길라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당창건준비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아길라르는 당창건에서 중요한 대중교양문제에 낯을 돌리고 《아메리카 라티나》방송국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환상을 가지고있던 꼬스따 리까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새형의 당창건의 밑거름으로 되였다. 아길라르는 출판보도선전을 통하여 대중을 각성시키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핵심들을 료해장악하기 위하여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씩 다니면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당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그는 마침내 주체사상을 지도원칙으로 하는 꼬스따 리까조직된 인민력량당을 창건하였다. 아길라르는 이 당의 총비서로 선거되였으나 그에게 있어 갓 창건된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리하여 아길라르는 주체73(1984)년 11월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평양으로 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갑게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아길라르는 그이께 라틴아메리카땅에 새로운 당을 창건할수 있은것은 수령님께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는것이 자기 당의 당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구가 정 그렇다면 몇가지 소감이라도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당을 창건하는것도 힘들지만 조직된 당을 확대발전시키는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또는 늦잡아도 안된다고 하시며 이 사업에서 좌경도 우경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들이 이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당이 사분오렬되고만다고 하시면서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울수 있는 사람, 인민을 위해 한목숨바칠줄 아는 사람들로 당대렬을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당대렬을 튼튼히 꾸린 다음에는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래야 당이 명실공히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꼬스따 리까조직된 인민력량당은 전진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정확한 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길라르에게 주신 한마디한마디의 말씀은 간고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체험하시고 쌓아오신 귀중한 당건설경험으로서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량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보적당들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로고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다.

주체77(1988)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혁명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당시 아프리카땅에 몰아치고있던 《다당제》의 광풍을 물리치고 유일집권당체제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던 탄자니아혁명당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표단성원들에게 혁명적당건설방향과 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금과 기계수단이 얼마 없이 사람들을 조직동원하여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당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당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당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당건설경험과 결부시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부라고 하여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리에 녹이 쓸고 때가 끼게 되며 나중에는 변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일부 사회주의나라 당들에서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하지 않다보니 당이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 당에서는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본주의때, 수정주의때가 끼지 않으며 혹시 그런 때가 낀다 하여도 인차 씻어버린다고, 간부들을 이렇게 늘 교양하여야 그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지 않고 일을 계속 잘해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탄자니아혁명당만이 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당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의 귀중한 지침이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건설과 당활동에 대한 사상리론과 경험을 받아안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진보적정당들이 사회주의리념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길,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한 탁월한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공산당에서는 경축집회가, 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는 강연회가, 말레이시아 엠. 케이. 피회사에서는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19일과 2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을 노르웨이공산당의 전체 당원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군령도는 사회주의조선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무력을 먼저 창건하시고 항일대전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령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실뿐아니라 조선에 강성대국을 향하여 비약할수 있는 튼튼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발과 제재책동을 물리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에 진행하신 그이의 현지지도는 단순한 군시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억센 의지가 담긴 선군령도의 첫 자욱이였다.

말레이시아 엠. 케이. 피회사 성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조선의 대답》을 보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에 대처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우리 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격찬하면서 우리 인민이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미국 《군사동맹》은 조선민족의 장래를 그르친다

중국신문 글 게재

중국의 《환구시보》가 리명박역적패당의 친미사대매국정책과 반민족적행위를 규탄하는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남조선미국동맹을 꼭 붙안고있는것은 잘못된 수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꼭 붙안고있으면 저들이 외교적으로 덕을 볼것이라고 여기고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망상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남조선의 안전환경을 더욱 렬악하게 만든다.

조선의 선군정책과 핵보유는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을 압박한데 기인된다.

최근 몇해동안 조선반도문제의 발전과정은 남조선미국《군사동맹》강화가 일을 잘되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 그릇되게 할뿐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둘째로, 조선민족의 장래를 그르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이른바 대국들사이의 대결은 사실 조선민족내부의 모순으로 하여 힘을 얻고있으며 남조선의 친미정책은 그러한 대결을 산생시키는 주되는 원인이다.

셋째로, 조선반도지역의 핵문제해결에 불리하다.

넷째로, 반드시 세계모순을 격화시키게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민주주의》대합창에 합세하여 저들이 정의의 화신인듯 자처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조선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줄뿐이다.

신문은 《〈천안함외교〉 무슨 득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천안》호사건으로 리명박《정권》은 남조선미국《군사동맹》의 강화와 대조선강경정책실현의 구실마련 등 일련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패한 후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진 리명박은 《정부》의 정책중점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조선강경정책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분명 리명박은 남조선미국《군사동맹》강화를 구실로 저들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지는것을 막으려 하였다.

남조선《정부》는 《천안》호사건을 둘러싼 움직임에서 확실히 득을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리로운가?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이 남조선의 위협에 굴복할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천안》호사건을 일으켰는가 하는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의 전말이 똑똑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여론이 남조선의 위협적인 행동에 지지를 표시하겠는가?

현 남조선《정부》의 집권리념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수 있는가?

지금 사람들은 이에 대해 지켜보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기치밑에 맺어진 불패의 친선

오늘은 조선꾸바친선관계발전력사에서 의의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지난 50년간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함께 어깨겯고 싸우면서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관계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비록 대양과 대륙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련결되여있습니다.》

조선꾸바친선은 사회주의기치밑에 맺어진 불패의 친선이다. 사회주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적기둥이다.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야말로 인류의 리상이고 광명한 미래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꼈다. 하기에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지구의 서반구에서 꾸바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여왔다.

꾸바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력과 제재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비판이 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꾸바인민과 같은 진실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기쁘게 여기고있다.

조선꾸바친선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다져졌다.

1986년 3월에 있은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꾸바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오늘 꾸바인민은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라울 까스뜨로동지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꾸바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의 공업을 현대화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꾸바당과 정부는 사탕수수재배에만 치우치던 농업의 편파성을 극복하고 1990년대부터 쌀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수요의 50%이상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교육과 보건분야에서도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문맹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어린이사망률에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다.

현실은 꾸바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가 정당하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자기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광명한 미래를 담보해줄수 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한 꾸바인민은 《사회주의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혁명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꾸바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 나라를 자본주의길로 되돌려세워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국은 《토리쎌리법》, 《헬름즈—버튼법》, 《꾸바조절법》과 같은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꾸바를 질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몇해전에는 꾸바정부전복을 골자로 한 《부쉬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그 실현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꾸바에 대한 제재와 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사회주의에 대한 꾸바인민의 신념을 조금도 흔들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동지는 인민주권민족회의 제7기 제5차 정기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꾸바는 혁명의 리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고무를 받고있다.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부당한 반꾸바봉쇄정책을 규탄하는 결의가 압도적다수가결로 련이어 채택된것은 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꾸바혁명을 지지하고 꾸바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에 기초한 꾸바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일본은 조선에 사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체사상연구협회와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에 즈음한 일본당국자의 담화에 항의하여 23일 자국주재 일본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일본수상의 담화는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이 과거죄행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있는것은 여전히 지난 시기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감행한 침략과 략탈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당국은 군국주의와 복수주의에 사로잡혀 과거청산문제에서 도이췰란드의 전례를 따르지 못하고있다.

조선의 독도에 대한 《령유권》주장과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회피는 전패국인 일본의 군국주의재생을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되며 이러한 행위는 진보적인류의 우려와 항의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조선인강제련행과 일본군위안부범죄 등 과거죄행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식량위기

소말리아에서 식량위기가 격화되고있다. 23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 나라에서 200만명의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3만 5 000명의 어린이들이 심한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한다.

지진

대만의 동부지역에서 22일 리히터척도로 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화련현부근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핵개발권리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8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최근 미군부와 정계의 고위인물들이 이란에 군사적공격을 가할것이라는 망발을 련이어 줴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만일 미국이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면 이란군대와 인민은 페르샤만지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복타격을 미국에 안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미국이 군사적위협과 압력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그들과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것이며 평화적핵개발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체육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우간다부대통령 부케니아 길버트가 최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체육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체육이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하면서 정부가 체육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체육활동을 강화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23일 북부와지리스탄지역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5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산불피해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22일현재 약 4만 500ha의 산림이 파괴되였으며 수백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볼리비아가 18일 국방분야에서 호상협조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잠비아와 모잠비끄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관한 8건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미국 버지니아주의 중부지역에서 22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적공포와 불안이 조성되였다.

이날 50대의 한 남성이 집에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보다 앞서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서 21일 정체불명의 범죄자들이 길가던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5명의 부상자가 났다.

또한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 등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무거운 빚부담에 시달리고있다.

17일에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현재 이 나라에서 가정들의 채무액이 총 11조 7 000억US$에 달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극심해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특히 뉴욕시의 맨하탄은 대기중의 일산화질소 등의 함유량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본련쇄점협회는 23일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7월에 전국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또 줄어들어 련속 20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7월에 이 나라의 강철업체들에서 조강생산량이 그 전달에 비해 1.4% 감소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혹심한 큰물피해

오늘 세계는 례년에 보기 드문 더위와 함께 무더기비와 큰물에 의한 피해를 혹심하게 입고있다.

수단에서는 큰물과 무더기비로 880여채의 살림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약 160개의 정부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23일 수단민방위최고리사회는 에티오피아고원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있는것만큼 앞으로 닐강수위가 높아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타이에서는 새벽에 내린 무더기비로 인한 강물의 범람과 산에서 흘러내린 비물로 4개의 주가 물에 잠기였다. 타이북부에 위치한 람팡주의 마을들에서는 큰물이 나수천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이 주의 어느 한 구역에서는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기였으며 도로운행이 중지되였다.

중국에서도 큰물과 무더기비에 의해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고있다. 중국의 하남성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련일 내린 무더기비로 성적으로 22만 900명이 피해를 입고 1만여명이 긴급소개되였다. 이번에 내린 무더기비로 성에서는 827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고 근 1 000채가 파괴되였으며 1만 5 770ha의 농경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료녕성에서도 5개의 시와 14개의 현, 86개의 향과 진에서 23만여명이 큰물피해를 입었으며 30만 4 000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고 202개의 광산과 기업소가 생산을 중지하였다. 감숙성 주곡현에서는 지난 8일 12시현재 흙과 돌이 섞인 물사태로 85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300여채의 살림집이 감랑에 묻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산동성에서도 큰물로 지난 13일현재 20만 4 500명의 주민들이 소개되고 54만 7 100ha 면적의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성적으로 볼때 총피해자수는 351만여명, 경제적손실액은 23억 7 700만RMB. Y에 달한다.

모리따니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는 며칠동안 내린 무더기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집짐승들이 죽었다. 이 나라의 누악쇼뜨에서는 큰물로 인해 500세대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필리핀의 마긴다나오주에서는 최근에 계속 내린 무더기비로 지난 17일현재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을들이 물에 잠겼으며 1만여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인디아의 북부지역에서는 큰물피해로 지난 10일현재 170여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행방불명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체스꼬에서는 큰물로 인한 피해손실액이 약 1억 6 000만US$에 달한다.

벨라루씨의 그로드노주, 위쨉스크주 등 여러 지역에서도 지난 8일 강풍과 무더기비로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1 000여채의 살림집과 사회봉사시설 등이 파괴되였으며 2 000여개의 주민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니제르에서는 큰물로 니제르강의 제방이 터지면서 약 5 000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3만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

현재 큰물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는 큰물로 지난 16일현재 1 600여명의 사망자가 났으며 70만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큰물로 수백개 마을이 고립되고 고속도로와 다리들이 끊어졌으며 수십만마리의 집짐승들이 물에 빠져죽었다. 많은 병원들과 의료시설들은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전염병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있다.

최근 유엔은 파키스탄에서의 큰물로 인한 피해자수가 2004년의 인디아양에서의 해일과 2005년의 카슈미르에서의 지진, 올해 1월 아이띠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수를 모두 합친것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파키스탄대사는 큰물로 파괴된 자기 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는데 수십억US$가 필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큰물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복구하는데 적어도 5년이 걸릴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막심한 식량부족과 실업, 빈곤을 가져올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대변인은 파키스탄에서의 큰물피해가 생산과 예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줄수 있다고 말하였다.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들은 파키스탄의 큰물피해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긴급원조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파키스탄정부에 6 000만RMB. Y어치의 원조물자를 또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스트랄리아수상은 자기 나라가 큰물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국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구제물자를 실은 2대의 군용기를 보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아랍나라들이 파키스탄의 큰물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원조를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것을 호소하였다.

파키스탄이 큰물로 피해를 입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뽈럭불가담운동은 이 나라에 대한 원조노력을 강화하려는 성원국들의 용의를 천명하였다.

얼마전 아시아개발은행도 파키스탄의 큰물피해자구제와 재해지역 복구자금으로 20억US$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날로 확대되고있는 무더기비와 큰물에 의한 막대한 피해는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를 방지 및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본사기자

ㄱ-01156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